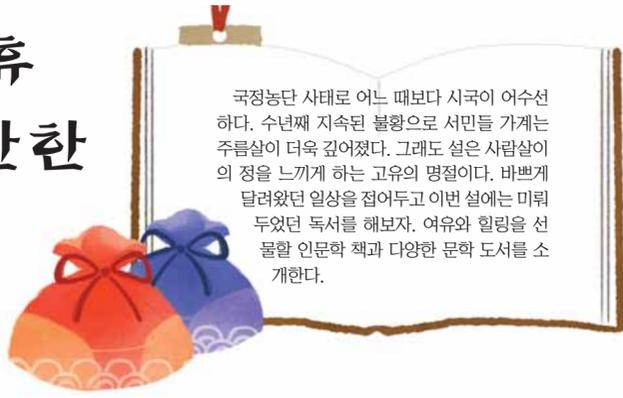


# 명절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 독서로 달래요

## 설 연휴 읽을 만한 책



국정농단 사태로 어느 때보다 시적이 어수선하다. 수년째 지속된 불황으로 서민들 가계는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도 설은 사람살이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고유의 명절이다. 바쁘게 달려왔던 일상을 접어두고 이번 설에는 미뤄두었던 독서를 해보자. 여유와 힐링을 선물할 인문학 책과 다양한 문학 도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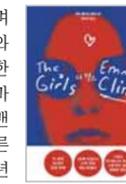
###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지음

철학자 최진석은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라고 말한다. 물질과 부와 명예가 아닌 바라보는 높이, 생계의 높이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의미의 철학은 ‘부정(不定)·선도(先導)·독립(獨立)·진인(眞人)’의 네 단계를 통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불화하는 용기를 통해 종속적인 나에서 독립해, 주체적인 나를 회복하는 단계(眞人)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인더 걸스 에마 클라인 지음

출간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뉴욕타임스 12주 연속 베스트셀러와 전 세계 34개국 판권 판매를 기록한 '더 걸스(The Girls)'. 2014년 에마 클라인의 데뷔작으로 1969년 찰스 맨슨과 그를 추종하던 소녀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중년 여성 이비는 우연히 십 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한다. 1969년 남부 캘리포니아, 폭력과 약물 그리고 반전운동이 열병처럼 번지던 시기 열네 살 소녀 이비가 공원에서 히피 소녀 무리를 목격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 인포메이션 제임스 글릭 지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북을 동동 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했고 조선시대에는 파발이나 봉화로 적의 침입이나 긴급한 사안을 알렸다. 하지만 19세기 유럽에서 전신이 발명되면서 소통과 통신은 거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전화,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편리한 소통의 도구들은 어떻게 발명되고 발전했을까? 베스트셀러 '카오스'로 '나비효과'를 세계에 각인시켰던 작가 제임스 글릭은 정보의 역사와 이론, 정보 혁명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 단 한 줄도 읽지 못하게 하라 주쓰이 지음

역사 이래 모든 시대에는 통제와 검열이 존재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 히틀러의 분서, 가톨릭교회의 금서목록 등 사회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책들이 찢기거나 불태워졌다. 그러나 작가는 펜을 무기 삼아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사회를 풍자하는 존재다. 저자는 기원전 410년의 '리시트트라타'부터 1988년 발표된 '악마의 시'까지 문학의 역사에서 자행된 온갖 사건을 당시의 기록과 풍부한 원문 인용을 통해 들여다본다.



### 빛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공지영 지음

2006년 처음 발간된 책은 이후 작가의 경험 등이 덧붙여져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됐다. 수록된 에세이들은 'J'라는 익명의 존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글은 기행도의 '빈 집', 자크 프레베르의 '이 사랑', 문학 작품을 매개로 전개된다. 작가는 'J'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상처의 기억이나 부조리한 현실 등을 과감하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모든 고통의 경험들이 삶의 한 과정임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 혜성 칼 세이건·앤 드루안 지음

혜성(Comet)은 달이나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빛자루 별'(중국인)이나 '먼지로 만들어진 별'(통가인), '연기가 피어오르는 별'(아즈텍인), '우주의 바다를 질주하는 물고기'(케플러)로 불렸다. 1985년 선보인 '혜성'은 과학고전으로 자리를 잡은 명저로 최근 칼 세이건 타계 20주기를 기념해 초판본이 새롭게 번역됐다. 저자는 혜성의 본질, 혜성의 기원과 운명, 혜성의 미래 등 크게 3부로 나눠 혜성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 시를 좋아하세요 이명옥 지음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명옥 씨가 펴낸 '시를 좋아하세요...'는 '시와 그림의 큐레이션'이다. 큐레이션(curation)은 큐레이터처럼 콘텐츠를 수집하고 가치를 부여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저자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거기에 맞는 한편의 미술작품을 소개한다. 28편의 시와 28편의 작품은 마치 삼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시 속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설' 또는 '철학에세이' 등의 문장을 인용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올빼미 눈에 비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김지수 지음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지만 정신적인 성숙함은 도외시한 채 외형적 발전만 좇는 모습으로 전락했다. 광주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로마리다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저자가 오랜 기간 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느꼈던 점과 한국에 돌아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원인을 윤리·도덕·인성이 빠진, 입시 위주 교육에서 찾는다. 현실감 있고 풍부한 사례 외에도 통계학자답게 각종 통계 자료를 덧붙여 신뢰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 바다상식 김용서 지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을 품고 있는 바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파도는 왜 칠까? 바닷물은 왜 소금물일까?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일부는 바다의 식물플랑크톤이나 대형 해조류가 만든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바다다. 바다는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한 인류의 식량 창고이자 미래의 생존 터전이다. 저자는 바다의 생성과 변화를 둘러싼 생물학적, 지구 과학적 비밀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동시에 신중하게 활용하고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 연옥의 봄 황동규 지음

황동규는 '즐거움 편지', '조그만 사랑 노래' 등으로 잘 알려진 한국 현대 대표 시인 중 한 명이다. 1958년 등단 후 58년간 존재와 예술, 세계를 향해 질문하는 절실한 시들을 창작해왔다. 시집 '연옥의 봄'에는 '연옥의 봄' 연작 네 편을 포함한 77편의 시가 묶였는데, 대부분 삶과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상적인 부재와 소멸의 사소함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기다림의 자제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이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설에는 역사에 관한 책을 한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를 매개로 한 소설과 인문서 그리고 다양한 도서를 추천한다.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지음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스타강사 설민석의 한국사 책. 저자는 흡입력 있는 간결함과 재치 있는 말투를 그대로 구어체로 담았다. 27명의 조선 왕들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정책과 주요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간중간 질문응답을 배치해 강연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왕이기에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 왕릉 역사 기행 손종흠 지음

무덤을 이루는 봉분은 등글지만 땅 속의 공간은 네모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근 모양의 윗부분은 하늘-사람-이승과 연결되고, 네모난 모양의 아랫부분은 땅-신-저승과 연결되어 있다.' 무덤은 각기 다른 두 세상과 두 존재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투영돼 있는데, 왕의 무덤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가야의 수로왕릉부터 조선 조 광해묘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측면에서 왕릉을 조명한다.



### 역사를 바꾼 50인의 지도자 찰스 필립스 지음

모세,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브러햄 링컨, 마더 테레사,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흔히 지도자의 전형을 꼽는다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는 지도자의 귀감인 도덕성, 열정, 용기, 의무감,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다. 저자는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상업 분야를 아우르는 50인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분석하며 인물들이 지닌 리더십의 특징과 유사성을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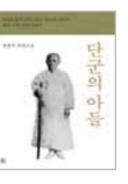
### 칼날 위의 역사 이덕일 지음

'헬조선'과 '흙수저'의 시대로 대변되는 오늘의 한국은 조선의 500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비와 비정규직, 광해군과 불통, 군주포제와 담배값 인상 등은 '대사부'가 느껴질 정도다. 역사학자 이덕일이 역사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사례를 근거로 현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해 사회를 갈가리 찢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는 이들을 질타한다.



### 단군의 아들 정찬주 지음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단군상상을 토대로 한 대중교를 중광(重光·다시 밝힘)한 나철 선생의 이야기다. 나철 선생의 일대기이자 식민사관에 의해 묻혀간 단군을 되살려낸 역사교양설로 정찬주 작가가 지난해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했으며 국치일인 8월 29일에 완료했다. 소설은 나철 선생이 살았던 한일 합병 전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단군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떠한 표상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회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문화 육성/골프문화 지원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향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글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방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설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시 옥생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 2014 제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시뮬을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캡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색채감각을 그대로 반영 가능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잔디와외의 플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용 합치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